

# 중국이 외래어 표기를 한글로 쓰면 좋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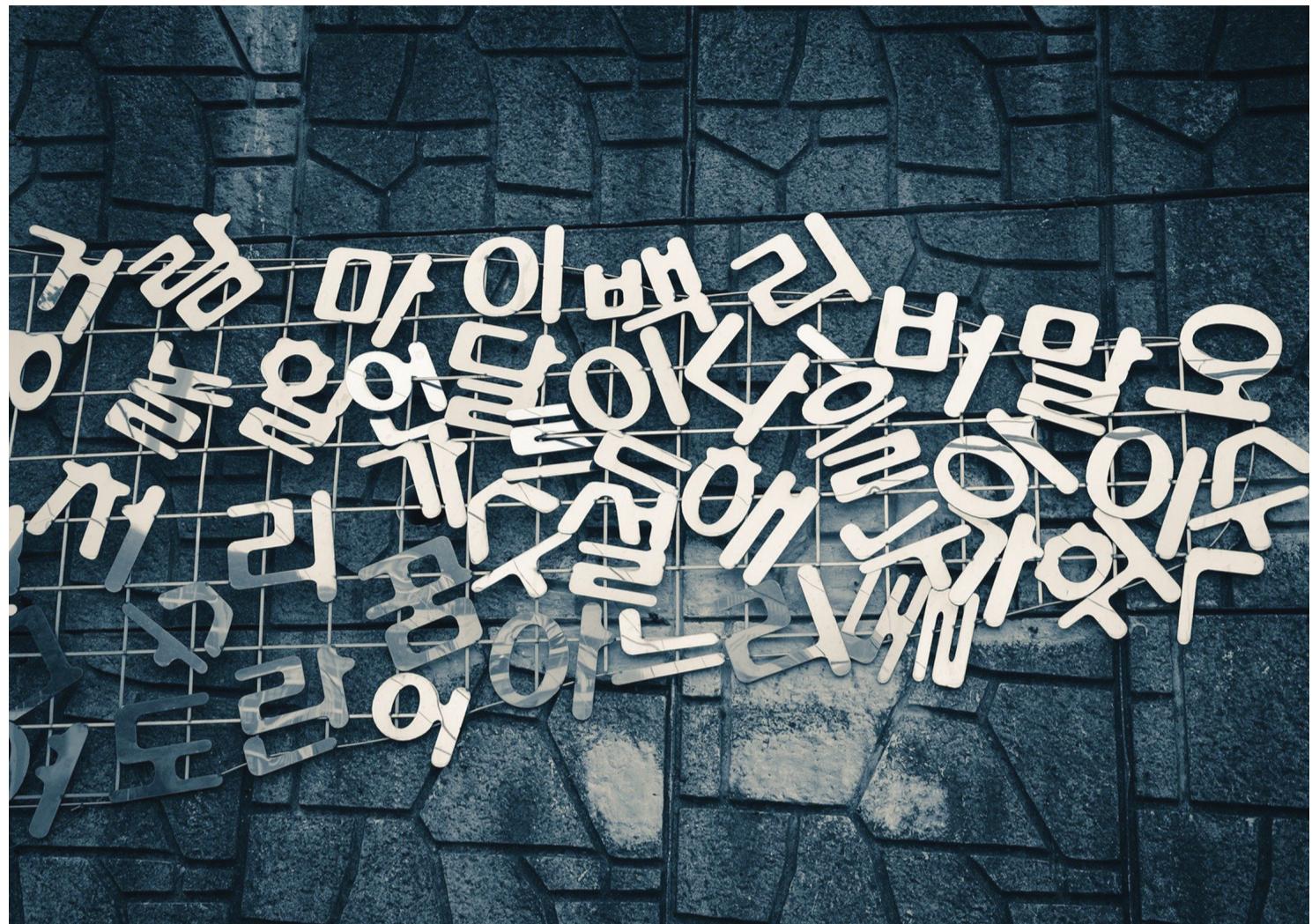
정태중  
교수·컴퓨터공학과

한글은 표음문자(phonetic alphabet)에서도 음절형식(syllabic format)을 가진 문자이다. 세종대왕은 뜻글자인 한자로서는 우리말을 표현하기 어려워 새로운 표음문자를 만들어 우리말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한국 발음을 잘 표현하면서도 한자의 소리를 잘 표현할 수 있게 했으며, 한자처럼 세로쓰기가 가능하도록 정사각형 모양에 음절을 만들었다. 따라서 한글은 한자의 소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인 것이다.

그런 한글이기에 근대에 들어와 중국인들이 한글을 중국의 문자로 쓰려했던 사건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19세기 후반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와 1950년대 류사오치(劉少奇, 1898~1969)에 의해 두 차례나 한글의 도입을 시도 했었다.

1882년 임오군란 때에 조선에 파병돼 청일전쟁이 끝나는 1894년까지 조선에서 살았던 위안스카이는 중국으로 돌아가 중화민국 초대 총통이 되었는데, 한자로 인해 문맹률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우기 쉬운 한글을 도입하려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망해가는 나라의 문자라고 해 한글 도입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 1950년대에도 문맹률 문제로 문자개혁운동이 시작됐는데 류사오치에 의해 시도됐다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국력이 약한 나라의 문자라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다고 한다.

한글이 우수한 글자라는 의견에 세계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한글 자모의 단순성과 직교성(규칙성)으로 인해, 표현할 수 있는 발음의 수도 제일 많고, 음성이 비슷하면 글자 모양도 비슷하므로 읽거나 배우기도 쉽고, 자모가 단순해서 쓰기도 쉽다는 점을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자를 사용하되 단순화하는 방법과 병음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 중국의 문자 정책을 존중하되, 특별히 외국어(외래어) 표기를 보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어 표기에 한글을 사용하면 정



한글은 한자의 소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인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말 편할 텐데 왜 저러고 있나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영어 Angel을 한글 엔젤, 한자어 安琪兒과 그 병음 ān qí ér을 사용한다. 다른 예로는 bus/버스/巴士/バス/bā shi, Canada/캐나다/加拿大/쟈나다/jiā ná dà, waltz/왈츠/華爾茲/화얼쓰/huá ēr zī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현재 외래어를 다루는 것을 보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1) 외래어에 해당하는 한자 단어를 일일이 만드는 것이 힘들다. 뜻도 고려하고 발음을 유사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개인이 만들 수는 없고 국가기관에서 표준을 만들어 써야 한다.) 2) 만든 단어를 교육하기도 힘들다. 만드는 것은 몇몇 학자가 만들 수 있지만 써야 할 사람은 십수 억 명이 되므로 교육하기도 퍼트리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3) 한자 어의 발음을 표현하는 병음의 발음이 원래 외래어 단어의 발음과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 원어민이 알아듣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원어 단어를 연상시키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분석해 보았다. 외래어 146개에 대해, 한자 대신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만들고/배우고/읽고/쓰기 쉬운 것은 당연하다. 본 연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세계 최초로 분석 및 비교해 보았다: 1)

한글의 원어 발음 재현율/한자 병음의 원어 발음 재현율 = (86.9% / 57.0%)로 나왔다. 원어민이나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를 90% 한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으면 70%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50%로 설문했는데, 한글은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알아듣고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원어 발음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자 병음은 발음 재현율이 원어민이나 한국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이다.

영어를 아는 중국인들도 특별히 그 단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모를 수 있는 정도로 재현율이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외국어 표기에 한글의 사용은 매우 효과를 볼 수 있다.

영어 단어 4개를 예를 들어 보면, (Angel/엔젤/安琪兒/안치얼/ān qí ér), (bus/버스/巴士/バス/bā shi), (Canada/캐나다/加拿大/쟈나다/jiā ná dà), (waltz/왈츠/華爾茲/화얼쓰/huá ēr zī)와 같다.

헬베티카 폰트 12사이즈를 기준으로 1)~2) 번 문제를 수업 듣는 20명의 학생을 통해 설문으로 자료를 얻어 분석했고, 3)~4) 번 문제를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문자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해 헬베티카 폰트 18사이즈를 기준으로 분석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글의 원어 발음 재현율/한자 병음의 원어 발음 재현율 = (86.9% / 57.0%)로 나왔다. 원어민이나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를 90% 한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으면 70%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50%로 설문했는데, 한글은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알아듣고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원어 발음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자 병음은 발음 재현율이 원어민이나 한국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이다.

영어를 아는 중국인들도 특별히 그 단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모를 수 있는 정도로 재현율이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외국어 표기에 한글의 사용은 매우 효과를 볼 수 있다.

2) 폰트 사이즈 12로 해 프린트 한 다음, 얼마나 면 거리에서 인식이 가능한지를 5가지에 대해 측정하도록 부탁해 얻은 평균 결과는 cm 단위로 다음과 같다: 영어 원어/한글/한자/병음한글/병음 = (152/199/96/176/140)이다. 한글은 영어보다도 멀리서 인식되고 한

자보다는 훨씬 멀리서도 인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글로 병음을 표현한 것도 알파벳 병음보다 멀리서 인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글 디자인의 인지적 우수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3) 단어의 평균 길이를 픽셀로 표현하면 한글/한자/병음 = (177/230/180)으로 한자보다 한글이 훨씬 길이가 짧음을 알 수 있다. 한글은 병음에 비해 약간 짧은 수준이다.

4) 단어가 차지하는 면적을 픽셀로 표현하면 한글/한자/병음 = (1589/1564/1785)으로 한자와 한글이 넓이가 비슷하고, 한글은 병음에 비해 적은 면적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외국 단어를 한자나 한자의 병음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중국인들과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국인들이나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 부담은 있지만, 한글 자체를 배우는 것은 우둔한 사람도 며칠만 배우면 평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문제이므로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본다.